



절망과 희망 사이

해당화

소개글

절망의 끝은 희망이다. 절망과 희망의 경계에서 서성이는 삶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길을 뚫고 나가는 길은 무엇일까.
손잡을 곳이라도 있다면 바로 거기가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으려니.
아찔해도 후둘거려도 가야 할 길이라면 한 발씩 내딛어야 하겠지.^.

목차

1	시인이 잠 못 이루는 사회	5
2	마산역에 깃들인 추억에게	7
3	만날고개를 오르는 사람들	9
4	왜 학교는 불행한가 다시 묻자	11
5	인연은 추억의 노래처럼	14
6	다시 평화의 길을 묻다	16
7	시인에게 아지트가 따로 없다	18
8	절망과 희망 사이	20
9	동두천 도가니 꿈수말라	22
10	더불어숲이 되어 살고 싶다	24
11	평화미술제에 깃든 예술혼	26
12	석전동 어귀에 들어서며	28
13	NO! 한미FTA 거리연설회에서	30
14	우리가곡의 밤은 아름다웠네	32
15	민들레꽃처럼 살아야 한다	34
16	1979년 그해 가을 마산은	36
17	1%? We Are The 99%!	38
18	내 가슴에 내리는 비	40
19	가슴과 가슴에 운해를 놓아	42
20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는 10.26	44
21	국회에 웬 전투경찰 물대포?	46
22	국화축제에 취한 마산에게	48
23	그래서 다시 길을 묻는다	50
24	창동소극장 소통 콘서트	52
25	객토문학 출판기념회에서	54

26	경남도민일보 공개강연회에서	57
27	제2의 촛불항쟁은 시작되었다	59
28	희망의 여성농민들을 만난 날	61
29	내가 걸은 무학산 둘레길	63
30	우리들 모두가 전태일이다	65
31	김주열열사 판소리로 부활하다	67
32	스마트폰에 띄우는 내 마음	69
33	창원큰들 풍물공연 통통튀다	71
34	희망찾기는 현재진행형	73
35	우리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	75
36	산이 맺어준 인연도 소중터라	77
37	손석형을 키운 9월은 희망이다	79
38	진보정치 강연콘서트에서	81
39	풀뿌리신문 희망을 쓰다	83
40	끝내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85
41	저렇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87
42	또 한송이 국화꽃을 바치며	89
43	추운 날 홀로 길을 걸으며	91
44	대학가의 달은 슬픔에 젖고	93
45	겨울 속의 봄을 기다리며	95
46	품어야 할 희망은 있다 없다?	97
47	초승달을 벗삼은 밤길에서	99
48	겨레의 슬픔 함께 나누며	101
49	블로그북 시집 〈절망과 희망 사이〉 후기^^	103



시인이 잠 못 이루는 사회

추석 전야 비가 내린다
고향을 찾는 이들

뺨 뚫린 가슴 위에도
쑥부쟁이 꽃잎 위에도
시름처럼 쏟아지며
딱딱한 삶을 적신다
99% 서민이 고통받는
불공정 사회에서
참된 명절은 없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현수막도
그저 말치레일 뿐이다
노동없는 복지가 허구듯
일자리 찾기 힘든
한국땅은 동토이다
안철수 박근혜 지들이
언제 가난한 사람들
싸우는 노동자들
걱정이나 한 적 있던가
85호 크레인 김진숙
정리해고와 맞서고
제주 구럼비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맞선
팽팽한 대결의 시대
MB 폭정 4년 동안
죽은 것은 4대강뿐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밤새 가을비는 내리고
귀뚜라미 울어예듯
시인은 잠 못 이룬다



마산역에 깃들인 추억에게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는 사람도 있지
내 가슴 설레던
오랜 기다림의 추억
마산역에 고스란히 남아
애달픈 사랑처럼
알알이 맺혀 있구나
부산까지 통학하였던

새벽기차는 지금도
기적소리 울리며
철로를 달리고 있겠지
입영열차는 아프게
전방으로 달렸고
광주 마산을 오가던
교사시절은 아득해라
총파업 노래 울려퍼지던
역광장이 떠올라
철도노동자 요구였던
안전한 철도는 멀고
이제 KTX가 달리는가
그동안 주고받은 소식들
하나같이 동지애라
빛 속에서 만난
보랏빛 꽃처럼 반갑게
내 가슴 뛰놀았던
그날의 기다림이
못내 아쉬워
마산역을 서성이나
추억은 머잖아
단풍잎으로 물들겠지



만날고개를 오르는 사람들

누구나 만날 사람 있고
애뜻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려니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마산 만날고개에
올라보면 행여 만날까

이산가족 이름 나붙은
벽보판 아래왔던
만날제 축제의 그날

탈놀음도 노래자랑도
함께 즐기며 놀고
막걸리 한잔 나눴지

해마다 추석 지낸 뒤
어울림의 한마당
펼치는 내 고장이여

오늘도 풍물 마산야사
민속놀이 춤 노래
흥겨운 판 벌였구나

만나면 반가운 이들과
약수하고 안부전한
마산 만날제 좋아라



왜 학교는 불행한가 다시 묻자

내가 감명깊게 읽은 책은
성래운의 <선생님께
다시 선생님께>였거니
문고판이었지만
교사의 길을 찾아서
고심했던 섬마을 중학교
그 시절이 생각난
경남도민일보 독자모임
주최 초청강연회
"왜 학교는 불행한가"

전성은 선생 이야기가
내 가슴을 울렸다
정권의 교육 통제가
극심했던 지난 날
양심적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반교육의 벽을 부쉘
진실을 가르치고자 한
젊은 교사가 겪었던
유신말기 80년초
교육관료들은 독재자를
떠받들고 교육현장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전교조도 없던 그때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자유 정의 평화로
가라던 말을 잊었다
그날 핏빛 광주가
진압되고 교단에 몰아친
국보위 강제해직은
아직 미해결로 남았다
전성은 선생의 강연에서
내내 가슴이 탄 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시국선언 소액정치후원
교사 해직 때문이었다
그 역시 아픔을 당한
평교사 출신이었고
이제 당당히 말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교육이 제 역할을 한다"
"학생사랑이 첫째다"라고
심장 속에 묻어둔
그의 굳센 교육철학이
거창고를 일으켰다
뒷풀이 한잔 술을 들며
남모르게 떠올려 본
겁없던 그때 후회없다



인연은 추억의 노래처럼

여름 두 달을 건너뛰고
선선한 가을밤에
우리들은 모였구나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
오늘 다시 만났어도
우정은 변함없어라

오랫만에 보는 얼굴들
어시장 복국집에서
한잔 술 함께 드는가

머리칼 희끗해졌어도
옛 노래인 편지를
노래방에서 부르며
70년대 추억에 젖네

맥주 발렌타인 17년산
나눠 마시며 놀은
그날밤을 잊지 말자



다시 평화의 길을 묻다

평화 복지가 화두다

2013년 그날을

사무친 그리움으로

불러보는 사람들

창원MBC 홀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와

경남의 선택을

위하여 힘 모았다

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통일이야기를
들으며 내 가슴은
신심으로 용솟음쳤다
32년 전 남북통일
시 한 편 부쳤다가
징역형을 받았던
아픈 기억도 살아나
남북관계를 파탄낸
MB정권의 끝을
기어이 보고 말리라
다짐하게 되었다
우리가 꿈꾸는
내 사랑 한반도
평화의 길을 보았다
다시 6.15선언
10.4선언을 아로새긴
경남회의는 빛났다



새 비경
밤과 아침사이 아픔과 기쁨사이
새날의 동트는 곳 우리가 서있는 곳
서귀

시인에게 아지트가 따로 없다

언제부턴가 PC방에서
작업을 하곤 한다
커피 담배 맘대로고
한밤중에도 자유로운
그곳을 즐겨찾는다
내 방의 윈도우95
원고집필용이었지만
골목에 내다 버렸다
때로 새벽녘까지
취재기 시 사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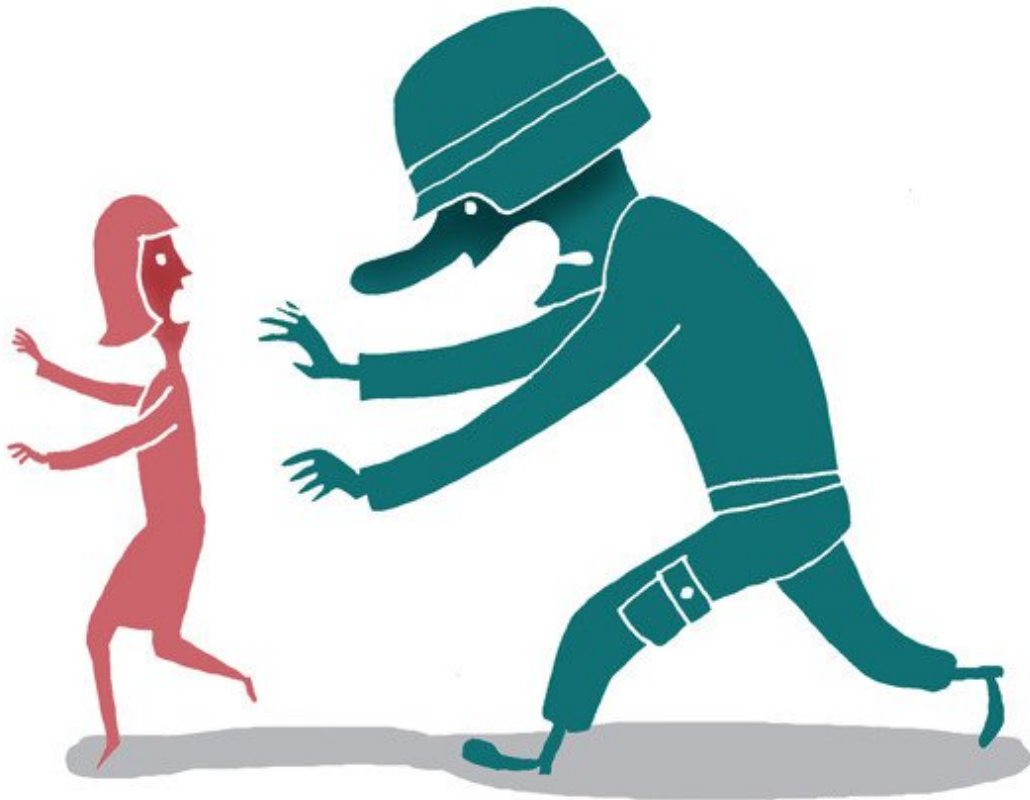
블로그와 카페에
포스팅하며 보냈다
오직 혼자만의 시간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웹2.0 시대를 산다
블로그북 시집도
트위터 페이스북도
이제 낯설지 않다
카메라 디카 촬영도
초보딱지는 떼었다
한 두어 시간쯤
머물다 일어서는
동네 PC방이 편타
사이버공간에도
만남은 이루어진다



절망과 희망 사이

벌써 낙엽?
오동잎이
수북히 쌓였네
썩은 관료배들은
안 떨어지고
고운 잎만
흘날려
한밤 내 마음

울적해져라
부패정권 끝은
멀지 않아
헛헛한 가슴
달래보는
가을밤
설악산에는
첫서리 내렸구나
진보의 길은
험난하고
지지부진해
통큰 단결이
아쉬워
술 한잔 나눌
참된 벗이
그립구나



전통의소리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by Ryu Dong Soo

동두천 도가니 꿈수말라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18살 여학생이
동두천 시내 고시텔
공부방에서
술 취한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효순이 미선이의 악몽
아직 잊지 않았는데
특 하면 살인 강간
저지르는 주한미군

야만의 범치는
SOFA규정 들먹이며
처벌받지 않는다
이 땅이 뉘 땅이건대
우리 손으로
구속 재판 못한단
말이던가
알아서 기는 경찰은
한국경찰이 아닌가
반값등록금 촛불
물대포로
무차별 연행으로
진압하더니만
신병조차 인수못해
부대로 돌려보내다니
이대로 더 이상
미군범죄를
그냥 뒤흔 안된다
굴욕의 땅 내 나라
"양키 고 홈!"
외쳐라 분노하라
사건 무마에 바쁜
대한민국 정부
언제까지
미국놈 눈치볼텐가
즉각 구속해
수사하라
고엽제 불법매립
여학생 성폭행
잇따른 미군 범치는
단죄돼야 한다



더불어숲이 되어 살고 싶다

나에겐 만남이 희망이다
촛불문화제에서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노래부르며 외치든
교교 동기들과
어울려 밥술을 먹든
마창지역 지인들과
커피 한잔 나누든
행사나 모임이 있거나
전화라도 받으면
아프지 않은 날은

카메라를 메고 간다
업무상 용무이건
뭐든 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른다면
한사코 달려간다
가야 할 곳
안 가야 할 곳
굳이 따지지 않는다
호젓한 산길에도
못 생명을 보고
약자지꼴한 술집에도
같은 길을 걷는
벗들을 마주한다
언제부터인가
가난한 시인이 사는
생활철학이 됐다
만남이 있기에
한 편의 시도 쓰여진다



평화미술제에 깃든 예술혼

반갑다 민족미술인들
정말 오래간만에
민중의 삶을 그려낸
작품들을 보았다네

민족의 내일을 열어갈
그림 한 점에 담긴
화가의 혼불은 타라

제주 광주 전시에 이어
민주주의 열망으로
마산으로 달려온
제3회 평화미술제여

부엉이바위 희망버스
생명의 강 만들레
시대정신 빛나거니

인권 생존 평등을 위해
예술로 행동하며
분노하라 외치는 듯
만인을 일깨우는구나

현실과 진실을 찾아서
험한 고개 넘어온
고난의 세월 뉘 알랴

이제 당당히 말하리라
민족과 역사 앞에
화가들이 바쳐야 할
참그림이 무엇인가를

기죽지 않고 붓을 잡은
민족미술인협회여
힘들어도 웃으며 가자



석전동 어귀에 들어서며

한밤중에 돌아오면
언제나
마주보는 저 달

도시를 떠나
깊은 산에 터를 잡고
몸살림 해 볼까

두어 잔 마신 술에
취해서야
어찌 노동하려나

밤 지새우며 글쓰는
시인에게
달은 연인처럼

오늘도
나를 반겨맞으니
늘 고맙구나



NO! 한미FTA 거리연설회에서

저기 아픔이 탄다
처절하게
분노가 탄다
"한미FTA 굴욕협상"을
날날이 밝히는
외침이 울려퍼진다

한국을 옥죄고
노동자 농민을 죽이고
인권 환경을 짓밟는
독소조항 가득한
망국적 협상을
단죄하며
시민들에게
길거리 연설하는
민주노동당
진정한
서민의 벗이다
항의서한마저 두려워
쇠사슬로 문 잠근
한나라당을 보라
폭정의 세월에
신음하는 민중들
아랑곳없고
미국 비위 맞추는
MB 독재정권
머잖아 끝이 난다
전 세계가 "분노하라!"
열풍이 몰아쳐
아우성치며
일어서는 이때
다시 한국 국민을
벼랑끝 삶으로
내모는 불평등 협상
더이상 안돼
저기 민심이 탄다
"국회비준 저지!"
성난 목소리가
내 가슴을 친다



우리가곡의 밤은 아름다웠네

달빛마저 흐릿한 가을밤
산복도로를 걸으며
가곡 들으러 가는 길

다리도 무겁고 피곤해서
쉴 곳 삼아 왔더니
가곡전수관 대단해라

낯익은 얼굴들을 만나고

커피 한잔 마시며
웃음꽃이 피어났구나

가곡 한 지 얼마됐어요?
물으니 자그마치
50년이란 조순자 관장

전통악기 켜며 옛시조를
맑은 목소리로 읊는
우리가락을 되살렸네

오늘은 느림의 미학으로
소통하는 가곡공연
내 마음이 푸근하여라

잔치집에 온 분위기같은
2011 전통음악축제여
좋은 울림 서로 나누자



민들레꽃처럼 살아야 한다

다시 민들레를 노래하자
35주년이 된 그곳
마산 가톨릭여성회관
참 사연도 많았어라
80년대 중반 노동자가
학습하며 조직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던 그 시절

최루연기 자욱하던
옥상은 그대로 남아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위하여 피흘렸던
술한 열사들 꽃넋도
되살아 오는 날
한잔 술 함께 나누네
해마다 민들레주점
찾는 사람들이여
세월이 가도 잊지 못할
내 마음의 민들레를
우리 다시 꽃피게 하자
가을비 속에 모여
참세상을 얘기하며
지나온 발자취를
잠깐만이라도
가슴에 그려보았구나



1979년 그해 가을 마산은

내 다시 너를 부른다
잊지 못할 그날
창동에서 대치하고
북마산파출소를
타격하고 회원동으로
또 산호동으로
이동해 자정 넘도록
홀라송을 부르며
독재타도를 외쳤던
10.18 부마항쟁이여
세월의 강은 흘러
오늘 32주년을 맞건만
진상규명 명예회복

아직도 못 이뤘네
뒤늦게서야 밝혀진
사망자 세 사람
고통의 세월 보내는
1500여명 피해자
그들은 폭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꽃이었다
박정희는 쓰러졌어도
참된 자유 민주는
쉽사리 오지 않았고
당시 주역들이
부마항쟁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피눈물로 외친다
광주항쟁에 묻혀진
그날의 항쟁은
타는 목마름으로
노래가 되고
춤이 되어
집체극으로 되살아
춧볼처럼 타거늘
어찌 과거사라 하랴
그날이 돌아오면
항쟁 발자취 서린
거리에 서 보자
10.18 정신을 빛낼
민주시민의 삶이
무엇인가 묻자
마산은 영원하다



1%? We Are The 99%!

점령하라 저 월가를
자본의 탐욕에
맞선 99% 힘이어
깊어만 가는
불평등의 세상
못 가진 자들만
죽어가는
고장난 자본주의의
1%에 저항하라
먹튀 론스타도
부실 저축은행도
날강도 FTA도
내곡동 MB 사저도

비싼 등록금도
재벌병원도
영도조선소도
공공의 적들 아니라
성난 민중들의
전 세계 동시행동
한국사회에도
경종을 울렸구나
중산층은 더 이상
이 나라에 없고
부자감세 토건족만
판치는 야만의 땅
농민 노동자 대학생
지식인 모두가
한몸이 되어
99% 힘으로 뭉쳐
점령하라
세상을 바꾸라



내 가슴에 내리는 비

밤새 비는 내리고
거리엔 은행잎
아픔처럼
흩날려 있네

내 부르고 싶은
이름들
저 멀리까지
들리려나

혼자의 힘은 약해
사람세상을
찾아가는 길은
함께 가야 돼

술 한잔을 마셔도
희망을 위하여

건배하며
잔을 부딪쳐야지

까맣게 타들어가는
가슴들을
적시는 가을비
단비였으면

새벽이 오기까지
잠 못 드는
시대의 얼굴들
눈에 선행라



가슴과 가슴에 운해를 놓아

그 산에서 나는 보았네
달려갈 듯 펼쳐진
구름바다 하얀 길을
저만치 손짓하는
봉우리들 어서 오라고
다리를 놓아 부르며
다시 못볼 비경을
속살처럼 드러냈구나
낮익은 산들에게

수신호로 인사하고
오래 눈길 보냈어라
지리산 벽소령
산행길에 뒤돌아보았던
운해를 무척산에서
이리 만날 줄이야
아침이슬 영롱한 산
가락국 혼불이
스며 있는 천지못
풍파를 다 겪고
의연히 선 바위군들
산에 든 이들을
반겨맞아 주었으니
명승지 예 아니라
내 몸도 마음도
홀가분해진 풍경이여
신비의 바닷길보다
거기 구름바다가
내 가슴 뛰놀게 했네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는 10.26

시월의 꽃은 시월에 핀다지만
10.26은 채 피지 못했다
그날 마산 창동 거리에서
독재자 박정희가 총에 맞아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젊은 내 가슴은 막 뛰었다
부마항쟁 연행자는 풀려나
우리는 환호하였지만
80년 민주의 봄은 짧았고
다시 총칼에 짓밟혔다
아무도 김재규 구명운동을
펼치지도 않았던 그해
어느덧 32년 세월이 흐른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의 열풍이 불고 있다
부산 경남 민심도 많이
달라졌다는 말이 들린다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 다음
YS DJ 노무현 MB까지
겪어 보았지만 글썽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아니고야
결코 사람세상은 못 온다
그날 7080세대 중장년층은
불안정노동자 서민들이다
부마항쟁특별법 제정도
안된 피해자들의 응어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나 역시 긴급조치 해직
고통을 겪은 한 사람이다
10.26을 떠올려 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신시대 폭정의 세월이다



국회를 왜 못 들어가
한미FTA 반대
성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물대포로 연행으로
왜 막느냐 말아야

불편한 다리로 하우스
하신다는 74세 농민
농민회 대절버스에서
아들을 만났다는
이 땅 농사꾼의 심정을
니들이 어찌 알라

자식들 가르치려고
하도 일해서
지문마저 안나와
왼손으로 찍으셨다는
한 농민의 이야기가
트윗에 올려져
눈시울을 달구건만

가장 피해가 큰
한국농업을 지키려는
절박한 싸움에서
어찌 제2의 을사늑약을
뉘놓고 그냥
당하고 있을쏘냐

오로지 가슴 속에
타는 분노로
망국적인 국회 비준
강행처리를 저지하고자
온몸을 던지는
99%의 힘을 보라

한미FTA를 막아야만이
농민도 살고
노동자도 상인도
국민도 살거늘
국회를 왜 못 들어가



국화축제에 취한 마산에게

축제, 이대로 좋은가
혈세를 쏟아붓고
흥청거리는 도시여
실업자 비정규직 자살
넘쳐나는 이 땅에
99% 서민 살리는 일
다 제쳐둔 채
춤과 노래를 즐기며

술에 취해 보낸
하루를 돌아보면서
문득 묻고 싶었네
국화축제야 좋지만도
지금 나라꼴이
영망진창 아니던가
한미FTA만 해도
날치기가 코 앞인데
또 통합청사가
내일은 어찌될지
별 고민없이
달려간 축제의 장
아쉬움이 일어라
내 마음 같아선
남북관계가 풀렸으면
금강산 단풍보러
관광버스를 탔거늘
어찌 마산 돌섬
제1부두 국화축제에
비길 수 있으리오
축제, 이대로 마냥
환호할 때인가
따져보고 싶었네



그래서 다시 길을 묻는다

이제 평화는 생존이다
명태잡이 바다도
뱃길 오고가는 그날
홍작의 시름은
더 이상 없고 말고

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 관광도

남북합작 개성공단도
끊겨 버린 슬픈 땅
통일의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한가

1953년 7월에 맺어진
정전협정 조항은
어느 순간에
전쟁이 터져도 그만인
한반도의 뇌관이다

북미간 핵 억제력이
언제까지 통할까
제2의 연평도 사태는
전면전이 된다
참화를 막는 길은
평화협정 체결이다

경남NGO 박람회에서
평화통일 정책을
토론한 값진 시간
내가 느낀 것은
평화란 공존이었다



창동소극장 소통 콘서트

창동소극장에 가면

독립영화를

함께 볼 수 있고

생명 평화를

얘기하는 노래를

함께 들을 수 있지

어제는 애니메이션을
오늘은 인디포크를
빈 점포를 활용한
마산 창동에서
청춘의 열정으로
손뼉치며 감상하지

80년대 소극장 운동
그날 이후 새롭게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
공연을 펼치며
우리시대 문화를
지역에서 일궈가지

가을이면 그리움으로
다시 불러보는
노래를 들으면서
추억에 젖어
아스라한 첫 마음을
가슴에 새기지

홍대거리 아니어도
우리 고장에서
예술촌을 가꾸는
창동 상인들
문화예술인들에게
큰절 올려야지



객토문학 출판기념회에서

시집 한 권이 힘이다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방통대에서
공부하던 1990년
시대의 아픔이 모여
동인으로 뭉친 사람들
객토문학 동인지
어느새 8집을 내고
어제 조출하게

시인끼리 출판기념회를
마산에서 열었다
각하께서 이르기를
제목이 풍자적이었다
MB정권 실정을
민생고에 빗대어
나무란 시였다
한결같은 노동시인
이규석 표성배 배재운
오랫만에 만나고
이월춘시인 촌평을
함께 들으며
객토를 품에 안았다
동인지도 드물고
노동문학도 귀한데
21년 세월 동안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삶의 문학을 지탱한
마창지역 시인들
술 한잔 나누며
문학 얘기 사는 얘기
주거니 받거니 하며
밤은 깊어갔다



경남도민일보 공개강연회에서

정운현 언론인의 강연을
들으면서 깨우친다
신문의 차별화 전략을

지역신문이 잘 되자면
오징어를 잘근잘근

씹듯 시시콜콜한
읽을거리가 많아야
한결 정이 붙는단다

오마이뉴스 기자 시절
겪었다는 얘기들이
내 머리를 탁 쳤다

마치 블로그를 하듯
대화하는 기사쓰기가
독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대라지

알 권리와 비판 기능이
생명인 신문의 역할
다시 되새겨 보며

조중동에 맞설 무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지역신문이 갈 길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한 시간이었네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책임져야 될
도민주 신문 소중타



제2의 촛불항쟁은 시작되었다

99% 분노가 타오른다
서울 부산 창원
온누리에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광장으로 모여든
성년 국민들이
노동자 농민 대학생
중소상인 정치인
문화예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한목소리로 외친다
"한미FTA 저지!"
지금 막지 못한다면
먼 훗날까지
천추의 한이 되어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결의를 밝히는
이 땅 민중의 총결기
제2의 촛불항쟁이
경제주권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팔매질하며 외친다
"매국노는 가라!"
이제 행동에 나설 때
하나된 투쟁을
절절하게 부른다



희망의 여성농민들을 만난 날

오랫만에 전농 회관에 갔네
창원농산물센터 근처
전여농 후원주점 가는 길

22년 세월 동안 발같이처럼
이 땅 농사꾼의 역사를
역척스럽게 일궈 온
여성농민의 삶을 그리며

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
자리에 합석해 술 한잔
같이 나누며 환담했네

아이를 업고 음식 나르는
여성농민의 얼굴은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지역 동지들 반겨맞누나

안주거리가 참 신기했던
이날 찌짐 과매기 떡
공들인 요리를 맛보며

미숫가루 찹쌀 한 봉지씩
비상식량 할 요량으로
사서 배낭에 넣으니
농민의 땀방울 고마워라

제값받는 농산물 언제이라
망할 한미FTA 걱정않고
농사지을 날 간절하건만

살농정책에 가슴앓이를 한
우리 농촌의 들녘에서
여성농민들이 청보리처럼
넘실대며 자라고 있었네



내가 걸은 무학산 둘레길

앵지밭골에서 출발해
서원국 거쳐
학봉 너른마당까지
울긋불긋 물든
오솔길 따라 걷는다

참 오랫동안 만난

무학산 풍경에
내 고장 옛 추억이
아스라이 떠올라
숲속 돌레길
여기저기
눈길을 보낸다

낙엽 수북히 쌓인
그 길 위에서
오가는 사람들
인생사를 떠올릴까
돌탑을 보며
작은 소망을 빌까

소나무 편백 참나무
크고작은 바위들
야생초에게도
반갑데이 인사하고
늦가을을 맞는다

저만치 산중 절집은
단풍숲이 되어
못 생명을 품은 채
고즈넉한데
인연이란
쉬 맏지 못한다



우리들 모두가 전태일이다

은행잎을 밟으며 가는
이 길도 아픔이다
수많은 죽음을 딛듯

1970년 청계천에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절규하며 불꽃이 된
전태일 열사
그의 정신은 무엇인가

노동악법을 불사르며
추악한 자본과

권력에 맞선 노동자

41년이 흐른 오늘
수만의 노동자 대열이
서울광장에 모였다

망국적 한미FTA 반대
MB 독재정권 아웃
함성이 울려퍼졌다

고 이소선 어머니와
김진숙 지도위원
쌍용차 학습지 동지들

모두가 전태일이었다
더 큰 하나로 뭉친
민주노총을 보아라

전태일 정신은 끝끝내
우리 가슴에 살아
2012년을 꽃피우리니

이제 죽지 말고 싸워
승리의 그날까지
잡은 손 놓지 말자



김주열열사 판소리로 부활하다

남원 고향땅 창작판소리
"김주열 열사가"를
마산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들던 그날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시민들 고등학생들
얼마나 애절하였던가

"엄니가 보고픈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어머니!"

어젯밤 꿈 속에서 본
아들의 목소리에
울컥 솟구쳐 올랐던
눈물이며 통한이여

우리 어머니의 눈물은
세월이 가도
마르지를 않았구나

온 세상을 뒤흔드는
크나큰 울림이여
김주열열사는
영원토록 살아 있거늘

다시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는 민주주의여
이곳 마산땅에 오라



스마트폰에 띄우는 내 마음

블로그이웃 제비꽃 말이
스마트폰을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러기에 우연찮게
후배 대리점에서 HTC
기종을 하나 내렸다
터치야 실수 연발이지만
써 보니 기능이 놀랍네

나는 과연 뭘 할까
제2의 정보혁명 시대
또 다른 시작인가
스마트폰 시를 쓸까나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까지 힘받겠지
카카오톡 다운받고
메시지 채팅하듯
주거니받거니 해 볼까
와이파이존 찾아서
술술 댕겨볼 참일세
스마트폰과 맺어진 인연
나에게 행운을 주려마



창원큰들 풍물공연 통통튀다

여기 풍물소리가 울리네
큰들의 사물놀이에
관객들은 신명이 났지

옛부터 농자천하지대본
농기를 휘날리며
일과 놀이가 하나였다

80년대 중반 문화운동이

한창일 때 알게 된
전통예술 풍물공연을

너른마당에서 극장에서
곧잘 보고 즐겼던
어젯날이 생생해져라

팽과리 장구 북 징 사물
공연에 손뼉치면서
창동소극장 경사났네



희망찾기는 현재진행형

늦가을 비가 그친 날
영하 2도 마산역
와이파이존에 갔다

스마트폰을 써 볼까
해서 켜 보니

내 손 안에 들린
컴퓨터가 이거구나

밤10시 카카오톡에 뜬
"뭐하요" 문자에
답장을 보내보았다

이리저리 살짝 누르며
기능을 익히다가
구형한테 전화를 해
초보 딱지를 뗀다

보안 설정 어플 기능
설명을 들으며
소주 한잔 나누었다

노트북이 없어도 좋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프리랜서 작업을
할 수 있겠거니 싶다



우리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

첫눈이 내린 이 산하에

웬 날벼락인가
그리도 반대했건만
피가 거꾸로 솟는
한미FTA 날치기라니

"안중근의 심정으로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
최루탄을 던졌다"는
김선동 국회의원 말이
내 심장을 울리고

울 겨울나기도 힘겨운
서민들 몸도 마음도
예전같지 않은데
99% 국민의 삶은 더욱
참담해져 갈 협정을

이명박정권 한나라당이
속기록도 야당도
언론도 다 막은 채
본회의를 열어
날치기 처리한 11월 22일!

제2의 을사늑약이다
경제주권을 몽땅
갓다바친 저 매국노들을
MB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산이 맺어준 인연도 소중터라

무학산악회 회의 갔다가
추억의 군고구마를
굽는 드럼통이 신기해
디카로 한컷 담았네
어릴 적 맛나게 먹던
생각도 절로 나고 해서
여기 감자도 구워
추위를 녹여주거니
정이 오고가는 이곳

서원곡 맑은 농장에서
저번 무학산 둘레길
단체산행을 평가하며
정태규 회장이 밥 한끼
사겠다고 모였던 자리
별빛 아래 밤은 깊어도
비슬산 송년산행을
결정짓고 건배했어라
"회장이 바뀌어도
여러분이 잘해야 한다"는
말이 가슴을 탁 치던
행복한 산악회이구나



손석형을 키운 9할은 희망이다

그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멀고도 험난한 길을
흐트러짐 없이 뚜벅뚜벅
걸어온 손석형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창원지역 역사의 산 증인
노동자 도의원으로서
건네받은 13만장 명함
주인들께 보은하기 위해

서민의 꿈을 담아낸
"손석형은 손석형이 아니다"
진심이 스민 책을 냈다
모두 고개를 끄떡였다
권영길을 대신할 정치인
가난한 이웃들의 희망
생활정치인 손석형이
지지자들과 손 맞잡는
그의 창원 세코 행사장은
노래와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를 키운 9할은 바로
당신의 희망이었다!"라고
당당하게 말 건네는
따뜻한 그의 마음결이
내 가슴을 울렸던 그날
김두관 권영길 노동자
창원시민 너나없이
울곧게 세상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미더워
행복한 내일을 그렸다
우리 함께 그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힘을 보태주자고
자신에게 다짐하였다
풋풋한 민초의 향기가
참 그리운 북 콘서트에서
나는 손석형을 만났다



진보정치 강연콘서트에서

오늘밤은 참 신났어라
유쾌한 정치콘서트
후끈 달아올랐던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
이정희 유시민 노회찬
한자리에 모여
진보의 합창을 하며
오랫만에 웃음꽃이

노동자 서민의 얼굴에
활짝 피어들 났지
2012 희망정치를
이야기하던 그 시각
국민참여당 당대회
과반수를 넘기자
모두 환호를 올렸고
진보통합의 길에서
이제 한몸이 됐어
눈빛들 반짝이며
대표들의 말 한마디
놓치지 않았던
11월 29일 밤 10시
책 싸인회 자리에서
내가 늘 지니고 다녔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민주노동당 당원증에
이정희 대표 싸인을
추억인 양 받았네
한잔 술을 같이 나눈
지역의 동지들도
내일 떠오를 태양처럼
희망을 확신했어라



풀뿌리신문 희망을 쏜다

나야 민족문학의 길을
선택하였지만
지역신문 언론인들
참 열심히 하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밀착보도 세미나
풀뿌리 언론의 역할을

새삼 돌아보았어라

양산 진주 남해 통영
거제 창원의 기자
사례 발표를 들으며
고개가 꼬떡여지데

발로 뚫 현장 기사가
독자의 가슴을
울리더라는 취재담
삶의 맛이 우러나

힘들어도 함께 가야 할
지역신문의 한길에
희망을 불어넣었겠지
오늘 한 수 배웠구나



끝내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저 달도 날을 세웠구나
썩은 세상 도려낼
비수처럼 번뜩이건만

분노하지 않는 삶이란
영혼이 죽은 거지
한미FTA를 못 막으면
어찌 내일이 있으랴

서울 부산 창원 대구 등
전국에서 떨쳐나선
수천수만의 촛불 대열

어제도 오늘도 끝모를
성난 민심의 소리
하늘과 땅을 울리며
행동하라 외쳐부르네

하루의 노동이 고돼도
싸울 때는 싸워야
사람답게 살아가리라



저렇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12월의 마지막 단풍잎
오고가는 사람들
가슴을 물들이는가

타오르는 그리움처럼
빛을 발하는 얼굴
애달픈 사랑이려니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

서성덜 창원역에
초겨울 달은 밝구나

은행잎은 저도 내년에
또 다시 피어나리
한결같은 희망으로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딱딱한 세상살이
때로 시인이 돼 보자



또 한송이 국화꽃을 바치며

한일협정부터 잘못되었다
일제에게 면죄부를
준 박정희를 잊지 마라
그는 독립군을 죽인
일본군장교 출신이었다
어제 창원에서 열린
위안부 희생자 추모제
참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춤과 노래와 시를
제단에 바치고
할머니들 영령 앞에
헌다례와 제문을
아픈 마음으로 올렸다
일제의 사죄도 없이
수요시위가 어느덧
1000회째를 맞이하였다
친일과 독재가 버젓이
이 땅에서 활보하는
거꾸로 된 나라가
참 부끄러웠던 이날
꽃넛들의 피맺힌 한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주리라 다짐하였다
강도 일제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림창

서상균
seoseo@kookie.co.kr



추운 날 홀로 길을 걸으며

첫 한파에 몸이 떨린다
까짓 추위쯤이야
탁 떨어치고 길 나서니
차츰 온기가 돈다

저 들녘의 김장배추도
얼겠거니 싶다

서민들 가슴이야
오죽 움츠러들겠나

오뎅 천원어치 사 먹고
허기를 달래보며
평화포럼 사진 글을
블로그에 포스팅했다

씩을 민주당 등원 결정
한미FTA 어찌자고
오늘같이 추운 날
촛불은 활활 타련만

몸보다 마음이 더 추워
차라리 분노하라
함께 소리치고 싶다
절망의 땅 위에 서서



대학가의 달은 슬픔에 젖고

오랫만에 대학가에 갔네
신마산 댕거리 앞은
인문 사회과학 서점인
우리시대도 사라졌고
막걸리를 마시며 토론하고
민중가요를 부르던
해방촌 골목도 없구나
문학청년들 얼굴 찾기가
옛날 같지 않은 요즘

먹고 마시고 노는
유흥가가 돼 버린 이곳
시대가 변한 탓인가
사는 일이 운동이거늘
변혁운동을 이야기하던
그 많은 학생들은
이제 졸업해 버렸다지만
10.18 민주광장에서
연대집회를 열곤 했던
어젯날 추억은 생생하게
달빛처럼 빛나는구나
하기야 88만원 세대
허리 휘청거릴 등록금
게다가 하숙비도
깡충 올라 버렸다지
왜 이렇게 된 거야
묻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대학가의 달은 슬퍼라



겨울 속의 봄을 기다리며

한파 휘몰아치던 날에
빈 속을 덥혀 주던
오뎅보다 못한 MB정권
붕괴가 시작됐다지

혈세탕진 4대강 곳곳
균열이 생기듯
측근 부패비리 터지고

선관위 홈페이지
해킹하는 독재말기

지금 비닐집 쪽방에선
추위와 싸우다
죽어가는 사람들
슬픈 소식 끝없건만

토건족 배불리 먹이고
1% 부자 감세하며
FTA 날치기 하더니
99% 서민들 살림
갈수록 힘들게 됐네

정감록이 돌던 그때도
민란은 혁명처럼
씩은 관아를 들이쳐
새 세상 세우려 했지

이제 타오르는 민심은
수백만개 촛불로
통합진보당으로
속속 대열을 이루어
2012년으로 나아가네



품어야 할 희망은 있다 없다?

소금꽃나무는 냉방에서
열사들을 생각하며
한겨울도 버텼다는데
시인은 추위를 탄다

지난 겨울은 참 혼났지
전기장판도 없이
찬 방에 누워 자다가
그만 독감에 걸렸고

라면은 잘 먹지 않건만
따신 국물이 간절해
새벽녘에 끓여서
떨리는 몸을 덥혔다

밤새 작업하기는 PC방
거기가 더 따뜻해
스마트폰 쓰기보다
요금도 저렴해 좋다

블로그에 포스팅 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웹사이트 검색하며
오늘 일정을 챙긴다



초승달을 벗삼은 밤길에서

나의 꿈은 사실적이다
회산다리 붕어빵
노점아줌마들 보는

감기 몸살로 하루 꼬박
깊은 잠에 빠졌다
기운을 차려 나오니

밤하늘에 뜬 초승달이

내 마음 아는 듯
반겨맞아 주는구나

연합고사 반대를 위한
희망버스 소식에
시심이 뒤척였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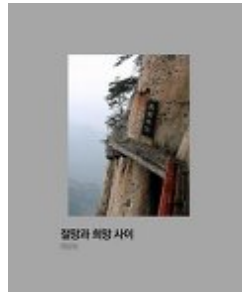
꿈 속에서 본 옛 동네
철길시장은 남아
억센 삶들을 그려라



겨레의 슬픔 함께 나누며

동짓날 추운 새벽녘에
그를 추모한다
조문은 못 가 봐도
겨레사랑의 마음
간절한 이 산하
시인으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싶다
분단 세월 견어낼
희망을 붙잡고
6.15선언 10.4선언

남북정상이 손잡은
그날을 되새기며
큰 슬픔에 잠긴
겨레의 반쪽
북녘 동포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전 세계 정상들이
평양으로 달려가
그를 기리건만
조문단조차 없는
MB정부 한심타
언제까지 철조망을
쌓고 지낼 것인가
통일의 새봄은
한겨레의 가슴마다
찾아오고 있거늘
더 늦기 전에
동포애를 보여
조의 조문을 하라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하여
겨레의 살불이로서
조의를 바친다



◇후기 -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은 시인의 몫이다

겨울 한파에 얼어붙는 것은 배추뿐 아니라 99% 국민의 살림이자 마음이다. 그만큼 한국 서민들의 생활은 각박하고 힘겹다. 어쩌면 우리는 '절망과 희망 사이' 경계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시인은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하얀 밤을 지새우며 시를 써내려갔다. 가을에서 겨울까지 쓴 시편들을 100P 블로그북 시집으로 정리해 펴낸다. 지금까지 4권의 전자책 시집을 블로그북으로 올려 놓았다. PDF 파일이지만 종이책 못지 않게 쓸모가 있어 보인다.

시집의 콘텐츠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로 시작된 우리시대의 민생, 민주주의, 통일에 관한 사연들이다. 나로부터 이웃, 지역사회, 전국을 아우르며 내밀한 일기처럼 시로써 형상화하려고 노력했다. 여기에 실린 시의 테마들은 어제, 오늘, 내일도 계속될 동시대의 화두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이 길은 끝없는 구도의 길이기도 하다. 문학은 곧 삶이고 희망이다. 절망을 맛본다는 것 자체가 희망을 찾는 작업의 발단일 수도 있겠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은 시인의 몫이다.

출판 여건에 상관없이 대중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블로그든 페이스북이든 웹상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소통하는 공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종이매체에 의존하던 때가 지났다. 바람직하기로는 온오프라인 동시 출간이 좋겠지만. 요즘 북콘서트가 유행인데 문학의 밤, 시집 출판기념회, 문학강연 등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했으면 괜찮겠다. 다시 문학이 본연의 역할을 찾아서 실천 행동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시란 민중의 삶을 노래하며 민족의 내일을 열어가는 희망찾기다. 당대의 민중들은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신음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분노로 저항하고 있다. 인간답게 산다는 일은 쟁취해야 주어지는 것이다. 문학은 당연히 이 땅의 민중의 삶과 부대끼며 쓰여지고 읽혀지고 활용되어져야 한다. 시가 무기가 되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의 길로 달려가야 한다. 마지막 앞새가 남아 있는 한 희망은 현재진행형이다.

2011. 12 무학산 자락에서, 저자

절망과 희망 사이

블로그 자신을 돌아보라 <http://blog.daum.net/youpoet>

저자 해당화

발행일 2011.09.11 22:53:21

 블로그